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과 이 시대의 종결과 주님의 오심

(금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주님의 임박한 두 번째 오심을 위해 주님께 의해 준비되도록 깨어 있고 예비함

성경: 마 24:1-3, 32-44, 25:1-13

- I. ‘오심’에 대한 헬라어(파루시아)는 ‘임재(臨在: 나타남, 와서 있음, 함께함)’를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될 것이다. 이 파루시아는 대환난 전에 있을 사내아이의 휴거(계 12:5)와 첫 열매들의 휴거(계 14:1-4)로 시작해서, 대환난 끝에 그분께서 성도들과 함께 땅 위에 나타나시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마 24:27, 30, 살후 2:8, 유 14).
- II. 우리는 주님의 임박한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징조들을 보아야 한다 — 마 24:1-3.
- A. (대환난의 마지막 삼 년 반 기간이 곧 시작될 때인) 이 시대의 끝에 대한 가장 큰 징조는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 마 24:14, 계 6:2.
- B. 주님의 오심에 대한 또 하나의 큰 징조는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한 나라로 복원된 것이다. 이 무화과나무는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끝에 대한 징조이다 — 마 24:32-35, 렘 24:2, 5, 8.
- C.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변절하는 일이 생기고, 그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 살후 2:3, 7.
1.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 요일 3:4.
 2. 불법의 비밀은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오늘날 민족들 사이에서 또한 인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힘, 즉 미혹하는 활동적인 능력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하신다 — 살후 2:11.
 3. 이와 같이 우리는 이사야서 5장 20절이 거짓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을 선이라 하고 /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 어둠을 빛에 두고 /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 쓴 것을 단것에 두고 / 단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 D. 이 시대의 마지막 삼 년 반 기간인 대환난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적그리스도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우상, 곧 그 자신의 형상을 성전 안에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과 그 자신 둘 다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다(마 24:15, 단 9:27, 계 13:14, 14:9, 11). 이것은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축될 것임을 보여 준다(살후 2:4).
- E. 홍수 전의 노아 세대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악한 생활 상태는 주님의 오심과 대환난 전에 있을 사람들의 위험한 생활 상태를 묘사한다 — 마 24:3, 21, 27, 37, 39, 눅 17:26-27, 21:34-36.

- F.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징조는 그분의 대부분의 믿는 이들 가운데 믿음이 없게 되는 것이다—“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 — 눅 18:8.
- G.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또 하나의 징조는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 마 24:12, 계 2:4.
- H. 마지막 때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징조는 부를 과도하게 축적하는 것이다—“여러분은 마지막 날들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 약 5:3.
 - 1. 주님께서 오시기 전의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 마 16:27.
 - 2. 마지막 날들에는 전례 없는 쾌락주의와 함께 물질적인 누림과, 정욕으로 가득한 방종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 약 5:1-6, 비교 숙 5:5-11.

III.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우리는 임박한 주님의 오심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며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한다(마 24:32-44, 계 19:7). 그럴 때 우리는 대환난 전에 휴거될 수 있을 것이다(계 3:10, 눅 21:36).

- A. 휴거의 의미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려면, 오늘 반드시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 — 고후 2:10, 시 16:11, 27:8, 43:4, 행 3:19-20, 출 33:14-16, 비교 창 4:16.
- B. 주님의 나타나심 곧 주님의 돌아오심을 사모하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곧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 딤후 4:8, 행 26:16, 요 14:21.
- C. 데려가지는 사람은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성숙하게 되는 것은 일생의 문제이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자람으로써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휴거될 수 있도록 성숙되어 있을 것이다 — 히 6:1, 요 21:15-17, 엡 4:15, 비교 창 5:22-24.
- D. 휴거될 준비를 하는 것은,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져 생명이 자라고 성숙되는 문제이다 — 엡 3:16-17상, 영한 동번 찬송가 395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98장).
- E.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걸려 넘어질 가능성에 대해 매일 경계하면서 조심하며 부주의하지 않는 것이다. 깨어 있는 이들은 분명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이들일 것이다 — 렘 17:7-8, 고후 1:8-9, 빌 3:3, 고전 10:12.
- F.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은밀하게 오셔서(마 24:43-44) 그분의 보물인 그 사람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보배이시며(벧전 2:7), 우리의 갈망은 그분께서 우리의 최고의 보배, 우리의 보물이신(고후 4:7)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심으로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 심지어 보배로운 자체가 되는 것이다(단 9:23, 10:11, 19).
- G. 특별히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날이 밝고 새벽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벧후 1:19). 우리에게 남아 있는 많지 않은 날들 동안,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 매일 부흥되고 이기는 이들, 세상을 떠나보내는 이들이 되자.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기 위한 것이다.

IV.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깨어 있음에 대한 비유이다.

- A. 처녀들은 생명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 왕국 백성인 믿는 이들은 순결한 처녀들과 같다. 처녀들로서 그들은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증거(등)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세상에서부터 나가고 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는 성령의 내주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도 필요하다 — 고후 11:2, 눅 11:13.
- 등은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을 담은 믿는 이들의 영을 상징한다 — 잠 20:27, 사 61:1, 히 1:9, 롬 8:16.
 -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빛을 비추어 낸다. 신성한 빛이 사람의 속부분들 안으로 비추어지기 위해서는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심지인 사람의 영(비교 롬 8:16)을 적시시고(사람의 영과 연합되시고) 사람의 영과 함께 ‘불타셔야’ 한다(롬 12:11).
 - 이럴 때 믿는 이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서 등불로서 빛을 비추며(마 5:14-16, 빌 2:15-16),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의 증거를 짊어진다.
 - ‘나간’(마 25:1)이라는 말은 믿는 이들인 우리가 어떤 곳에도 정착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세상에서부터 나가고 있다.
 -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께 기대고, 의지할 데 없어 그분만을 신뢰하며, 세상을 뒤에 두도록 우리의 ‘나가는’ 힘이신 그분을 끊임없이 누림으로써,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나가고 있다 — 아 8:5상.
- B.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 마 25:3-4.
- ‘그릇’은 믿는 이들의 혼을 상징한다 — 롬 9:21, 23-24.
 - 우리의 등에 기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거를 위해 처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을 채우시고 적시시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 마 25:4, 9-10.
 -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그 영께서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혼 안에 여분의 그 영을 소유하고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의 혼을 그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갖는 것을 상징한다 — 고후 3:18.
- C. 기름을 얻는, 곧 그 영을 더 많이 받는 최상의 길들 중 하나는 기도의 영과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다 — 시 119:15, 23, 25, 27, 48, 78, 97, 99, 148, 요 6:63, 엡 6:17-18.
- D.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 가니, 여러분의 기름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였지만, 현명한 처녀들은 ‘우리와 여러분이 쓰기에 충분하지 못할 듯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 마 25:8-9.
- 사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혼을 그 영으로 채우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마 25:4, 비교 잠 23:23, 계 3:18.
 -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 그 영(롬 8:16)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여분의 기름으로서 우리의 혼을 채우시고 적시시는 그 영은 우리가 값없이 얻을 수 없다. 이 영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사야만 얻을 수 있는 분이다.

- b. 대가에는 세상을 버리는 것과 자아를 처리하는 것과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된다 — 마 16:24-26, 막 12:30, 빌 3:7-8.
- 2. 우리의 긴급한 필요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을 더 많이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전 존재를 적시시는 여분의 그 영을 대가를 지불해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 마 25:9, 비교 단 5:27.
- E.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릇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혼 잔치를 놓칠 것이다. 우리가 결혼 잔치에 들어가도록 일찍 휴거될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가 매일 대가를 지불하여 그 영을 사는지에 달려 있다 — 마 25:10-12, 계 19:7-9, 고후 4:16, 딤후 3:5.
 - 1. 우리가 휴거되어 신랑의 결혼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긴 기간에 걸쳐 우리의 그릇 안에 충분한 영적인 기름을 축적할 것이 요구된다 — 계 19:7-9.
 - 2.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녀들, 곧 생활에서 깨어 있는 이들이 되고자 한다면, 시간을 사 와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분한 기름이 결혼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의 입구가 될 것이다 — 엡 5:16.
- F. 깨어 있는 것은 온종일 그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우리가 그 영께서 우리 전 존재를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는 깨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예비하고 주님께 의해 준비될 것이다 — 엡 5:14-18, 계 19:7, 21:2.
- G. 매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여 금기름이신 그 영을 삼으로써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교회들에게 그 영을 공급할 것이고, 주님께에서 어린양의 결혼 만찬에 참여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 마 25:9-10, 계 3:18, 스펴 4:6, 11-14, 삿 9:9.